

여수시, 양식어류 저수온 피해조사 나선다...피해복구 총력

피해신고 64건...내일까지 피해정밀조사·세부복구계획 수립 “피해 현황 신속 파악해 어업인 피해 최소화해 최선을 다할 것”

지난달 30일부터 여수해역 가두리 양식장에서 발생한 양식어류 집단폐사 원인이 저수온으로 판명됨에 따라 여수시는 피해 정밀조사를 통한 본격적인 피해복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폐사 원인을 조사한 국립해양수산물연구소, 전남도해양수산물확원 등 유관기관과 심의를 통해 이번 양식어류 폐사 원인을 저수온으로 판정했다.

올해 초 몰아닥친 강한 한파로 갑작스럽게 떨어진 수온에다 풍랑까지 거세지면서 물고기들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돌산읍·남면·화정면·월호동 64어가에서 345만여 마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 됐으며, 여수해역에 내려진 저수온 특보가 지난 6일자로 모두 해제돼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시는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해 유관기관·단체 합동조사반을 편성, 오는 10일까지 피해 지역별로 폐사량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이미 지난 6일 돌산 및 화정을 시작으로 7일에는 남면까지 피해조사를 발 빠르게 마쳤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세부 복구계획을 수립해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폐사체 약 50톤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전량 수거, 위탁(매몰) 처리해 해양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 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해 어업인 피해 최소화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저수온 피해 예방



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수=김현근 기자

(재)순천문화재단 '2023 청춘마이크 전라권역' 주관단체 공모 최종 선정

(재)순천문화재단(이사장 노관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전라권역 주관단체로 최종 선정됐다. 3년 연속 청춘마이크 주관단체로 선정된 순천문화재단은 기존 광주, 전남권역에 올리는 전북권역까지 포함한 전라권역 전체를 주관하게 되며, 청년예술가 45팀을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연간 총 270회 정규공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로 총 6억 8800만원이 투입되어,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광주·전남·전북의 다양한 장소에서 청년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게 된다.

특히, 올해 청춘마이크는 '청춘마이크로 함께 떠나는 여행 (청춘마이크 체크인)'을 콘셉트로 전라권 내 지역 특성과 지역주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 순회가 아닌 다중밀집 장소 위주의 고정 장소에서 진행해 사업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전라권역 13개 지역, 13개소에서 각 3회 이상을 청년예술가들의 공연을 진행하고 특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중 45개 모든 공연팀이 참여하는 '청춘마이크 페스티벌 전라권'을 양일간 개최해 박람회 성공개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순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올해는 지역주민 중심의 기획을 강화하고 각 지역, 장소, 시간, 관객들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지역주민 문화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며 “참여하는 청년예술가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 및 공연지원을 확대하고, 청춘마이크로 함께 떠나는 여행을 통해 비움과 채움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제22회 광양매화축제, 광양시티투어로 즐기세요

축제 기간 주말(토·일) 총 4회 운영...순천역·광양읍터미널 등에서 탑승

광양시가 4년 만에 공식 개최되는 제22회 광양매화축제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광양시티투어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시는 광양매화축제 기간(3.10.~3.19.) 주말인 11일과 12일, 18일과 19일 등 총 4회에 걸쳐 광양매화마을을 편안히 여행할 수 있는 시티투어를 가동한다.

광양매화축제 시티투어는 순천역(15시 20분), 광양읍터미널(16시)에서 탑승해 광양매화마을에서 석식과 축제를 즐기고 광양읍터미널(21시 20분), 순천역(22시)에 도착한다. 시티투어를 이용한 광양매화축제는 섬진강변 매화마을의 아름다운 장관과 노을에 이어 반짝이는 야간 경관을 두루 즐길 수 있다

는 점이 매력 포인트다. 이 밖에도 광양시는 역사코스(수), 야경코스(금), 주말특화코스 등 테마별, 계절별 시티투어를 유연하고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관광지 4곳 이상, 관내 식사 1식 이상 등을 충족하는 15명 이상의 단체가 투어 7일 전까지 예약하면 월·화·목요일에 한하여 희망 코스로 단독 투어가 가능하다. 광양시티투어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투어 3일 전까지 전화(061-794-8804~5)로 예약해야 하며, 7명 이상 예약 시에만 운행한다.

단, 단체는 7일 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이용요금은 일반 5천원, 군인·경로·학생 4천원, 장애인·미취학아동 3천원이며, 입장료와 여행자보험, 식비 등은 별도다. 정구영 관광과장은 “4년 만에 개최되는 제22회 광양매화축제가 전 국민의 기대와 호응 속에서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며 “광양매화마을의 아름다운 장관과 반짝이는 야간 경관을 모두 만끽할 수 있는 광양매화축제 특화 시티투어로 낭만 가득한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 기자

고흥군, 드론 조종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호응

수요자 맞춤형 드론 자격증 교육 인기...군민과 고흥산업과학고 학생 대상



고흥군이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드론산업 분야 조종 전문인력 양성과 드론 친화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드론 아카데미는 군민과 고흥산업과학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자격증 1종(25kg 초과) 취득과정',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

상으로 하는 '4종(2kg이하) 항공촬영 전문가 양성과정' 등 2개 과정으로 매년 전문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군은 올해 드론 국가자격증(1종) 취득 30명 인력 양성 등 총 90명을 목표로 군비 1억원을 투자해 드론 조정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드론 국가자격증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또는 드론) 조종자 국가자격증으로, 군은 국가자격증 1종 취득에 드는 1인당 교육비(300만원)중 50%를 보조하고, 항공촬영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비로 80만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군은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을 위해 상반기 교육생으로 20명을 모집했고, 지난 2월 1차 교육생으로 9명을 선발해 고흥드론센터 내 교육장과 수석야구장 실습장에서 3주간 이론과 실기비행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차수별 교육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받고 있는 한 수강생은 “드론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수강료가 부담돼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드론자격증을 취득해 농업 및 실생활 등 여러 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은 올 하반기 '국가자격증 1종 취득과정'에 군민 10명을 추가 선발하고 방학기간중 산업과학고 재학생 10명을 비롯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해 오는 7월부터 드론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보성군, 고흥사랑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첫발

보성군은 7일 고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3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보성군 고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단원직 3명, 위촉직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매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철우 보성군수가 참석해 심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참석자들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고흥사랑기금 운용을 통한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기금운용 심의회에서는 올해 고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보성군은 의결된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성군의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기금설치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고흥사랑기금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부문화 조성 및 홍보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보성=김덕순 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